

# 역사 · 페미니즘 등 다양한 소재로 확장

## 책과 떠나는 시간여행 10 90년대 장편소설의 흐름

독서시장에서 소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다. 최근에는 《아버지》열풍에 힘입어 소설이 베스트셀러 종합순위의 상위를 점하고 있기도 하지만, 소설/비소설의 대비가 책의 성격을 가르는 가장 단순한 구분법이고, '소설책'이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책으로 익숙한 것 역시 출판에서 소설의 높은 비중을 말해준다.

우리가 흔히 소설책이라 일컫는 것은 장편소설이다. 중·단편을 엮은 소설집이 널리 읽힌 적도 있었으나 이제는 일반 독자의 시야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 소설 부문 베스트셀러에도 소설집은 보이지 않는다.

### 대중소설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

70년대 중반에는 이른바 '호스티스 소설'이라는 대중소설이 널리 읽혔다.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후반까지는 대하소설을 필두로 무거운 주제를 다룬 소설들이 독자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90년대의 소설은 전시대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우선 밀리언셀러의 등장률도 들 수 있다. 90년대 초반 백만권이 넘는 판매량을 기록한 소설이 여러 권 나와 출판관계자들 스스로도 놀라는 상황을 연출했다.

다음은 본격문학과 대중문학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점이다. 이제 소설의 가치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오로지 상품성에만 국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추어 소설가의 득세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다양한 장르의 소설이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읽혔다 사라지는 것도 90년대 소설의 특징이다. 마치 할리우드의 장르영화처럼 대중역사소설·페미니즘소설·영화소설·소설가소설 등이 명멸했다.

《소설 동의보감》(창작과비평사, 1990)은 이러한 90년대 베스트셀러소설의 특징을 대변하는 책이다. 방송작가 이은성의 미완성 유작인 세권짜리 소설은 단숨에 밀리언셀러가 된다. 여기에는 친구의 유작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알맞은 곳에 일을 맡긴 진한 우정, 영성향 구성을 짜임새 있게 만든 출판사의 편집력, 80년대 갖은 고초를 겪은 출판사를 돕고자 좋은 자리를 내준 서점 직원들의 호의가 밑거름이 되었다.

'동의보감'이 뜨기가 무섭게 옛책의 소설

화가 붓을 이룬다. '목민심서' '토정비결' 등이 소설로 씌어져 '동의보감' 못지 않은 호응을 얻었다. 대중역사소설의 만개는 오세영의 《베니스의 개성상인》(장원, 1993)을 정점으로 수그러든다. 일반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귀에 익은 저작을 매개로 한 소설과 맞아떨어져 상승작용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이 역사소설이 세권으로 이뤄진 점은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유행한 대중소설이 역시 세권으로 구성된 것과 같아 흥미롭다. 런던그럽가의 가난한 소설가들은 한번의 베스트셀러를 위해 힘든 삶을 이겨냈던 바, 거의 1백년 후에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었다. 대중소설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한 것이다.

###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역사소설에서 소설시장의 주도권을 이어 받은 분야는 페미니즘소설이다.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문예마당, 1993)는 독서시장을 좌우하는 20대 여성들이 만들어낸 베스트셀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오피스 레이디'와 여자 대학생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또한 이 책의 성공은 이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책을 만들어 달라는 확실한 의사표시로도 간주할 수 있다.

페미니즘소설은 문단 경력이 풍부한 중견 여성작가에 의해 주로 씌어져 좋은 반응을 가져왔다. 양귀자·박완서·김향숙 등이 그들인데, 양귀자는 92년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살림)을 통해 이 주제를 환기시켰고, 《서있는 여자》를 통해 일찍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위상을 깊이있게 다룬 박완서씨는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삼진기획)에서 많은 후배 여성들을 의식화시켰다.

베스트셀러들에 가려 있지만 김향숙의 《떠나가는 노래》(현대문학, 1991)는 빼놓을 수 없는 페미니즘소설. '한 여자의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이 소설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혜옥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이 땅에 사는 여인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펼쳐고 있다. 1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에 이르는 여인의 반생기를 통해 남성중심주의에 의해 방황과 갈등, 그리고 고통을 겪는 여인

70년대 중반에는 이른바 '호스티스 소설'이 널리 읽혔다.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까지는 대하소설을 필두로 무거운 주제의 소설이 독자의 사랑을 받았다. 90년대 들어서는 본격문학과 대중문학의 경계를 허무는 베스트셀러들이 여러 종 나왔다.



왼쪽 위부터  
최인훈·이청준·  
양귀자·신경숙씨.

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

김향숙은 현실의 논리를 더욱 발전시켜 '문없는 나라' 연작에서 80년대가 양산한 서로 계층을 달리하는 남녀 사이의 결혼을 충실하게 묘사했다. 대학을 나온 여자 주인공은 노동자인 남편과 산다. 여자의 내면 심리묘사를 통해 다른 성장과정을 지닌 부부의 갈등을 탁월하게 묘사했다. 김향숙의 작업이 남다른 점은 이후 나온 다른 작가의 작품과 비교할 때 쉽게 드러난다.

운동권 후일담소설이기도 한 안재성의 《사랑의 조건》(한길사, 1991)과 공지영의 《고등어》(웅진, 1994)의 남자 주인공은 이혼한 남자이다. 이들은 대학을 나온 활동가로 확실한 '존재 이전'의 방편으로 여성 노동자와 결합한다. 자신들의 계급적 한계를 '면피'하기 위한 결혼이 깨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

거의 20%에 이르는 이혼을 놓고 보면, 다른 환경에서 자란 이들이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혼의 책임을 은연중 못배운 여성에게 돌리는 작가의 태도는 문제가 많다. 작가들은 본인 혹은 동료들을 옹호하는 서술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특히 《고등어》의 남자는 우유부단한 성격을 시대의 아픔을 감내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흔으로 미화하고 있다.

### 영상시대의 소설과 영화

사회과학이 80년대 젊은이들의 교양과목이었다면, 90년대 그 자리는 영화가 차지한다. 영상기법은 소설 뿐만 아니라 시를 포함한 문학전반에 넓게 활용되고 있다. 김승옥에서 이창동에 이르기까지 소설에서 표현하지 못한 것을 영화를 통해 실현하고자 애쓴 작가가 드물지 않았지만, 이제는 영화만들기를 감안한 소설이 출현하기에 이르렀다.

이청준의 《축제》(열림원, 1996)는 대표적인 영화소설로 꼽힌다. 영화소설의 작가가 20대 신예가 아니라 한국소설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라는 점이 이채롭다. 작가는 노모의 장례식을 소재로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각장의 말미에는 영화감독에게 보내는 편지를 덧붙이는 형식을 취한다.

"소설이 무언가 영화와는 다른 장르라는, 가능하다면 영화와는 유다란 이런저런 독자성과 강점을 지닐 수도 있는 예술 장르라는 것을 보이고 싶어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

좋은 부모, 존경받는 스승을 위한 59가지 이야기

자녀교육 함께 생각해 봅시다

# 더불어 사는 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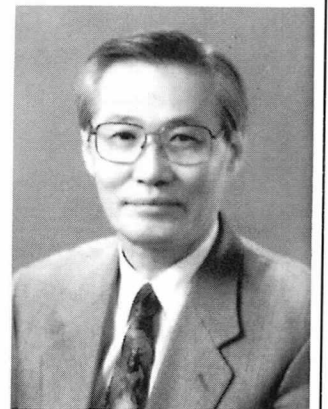
30여 년 동안 교육학을 가르쳐 온 노교수의 자녀 교육에 대한 올바른 지침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깨닫게 가르쳐라.”

이 책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대화가 없는 곳에는 불신이 뒤따르고, 대화가 단절된 곳에는 오해가 짙게 마련입니다. 정우현 교수가 권하는 4가지 대화법 그대로 실천해 보세요. 첫째, 특정용건보다는 일상적인 이야기에서부터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일방적 훈시보다는 주고 받는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셋째, 말보다는 실천이 뒤따르는 성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넷째, 분석적 용어보다는 행동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지은이 정우현

1933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전남대학교 농과대학교 미국 뉴멕시코 주립 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과정을 졸업했으며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고등교육 연구회 회장, 정동 제일교회 장로, 한·미 재단이사, 호수돈 학원 재단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1971년부터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교사론> <현대교사론> <동서사도론> <사회교육론> <직업기술 교육론> <우리나라 대학원 제도> <교육사회학 연구> <교육사회학 연구동향> <가정과 사회> 등이 있다.



아픔을 모르는 자여! 아름다움을 꿈꾸지 말라.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이철환 산문집  
**[ 아름다운 아픔 ]**

성현출판사 **성인출판** 전화 565/1113  
 팩스 565/6727



않았다.

**소설가소설 '화두'와 '외판'**

《추적》은 소설가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90년대 유행하는 '소설가소설'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외판 방》과 《화두》역시 '소설가소설'로 많은 화제를 불러왔다. 특히, 작가의 일상을 그대로 옮긴 것이나 실록 형식을 채용한 것은 두 소설을 소설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을 일게 했다.

신경숙의 두번째 장편소설인 《외판 방》(문학동네, 1995)은 산업체 부설 고등학교를 나온 작가의 경험이 녹아 있는 작품. 첫번째 소설집 《겨울우화》(고려원)에 들어 있는 같은 제목의 단편이 장편으로 몸피를 키웠다. 90년대가 산출한 뛰어난 노동소설이라는 평을 들으며 지난해에는 만해문학상을 받기도 했지만, 여과과정을 거치지 않은 작가의 감상이 지나치게 노출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화두》(민음사, 1994)는 《광장》을 쓴 최인훈이 오랜만에 발표한 전작 장편소설. 20세기 세계를 양분했던 미국과 소련을 방문한 작가의 체험이 바탕이 되었다. 책을 좋아하는 식민지 소년은 지배자의 도서관에서 책에 대한 갈증을 채우고, 작가가 되어서는 낯선 땅에 가서야 금지된 책을 읽게 된다. 작가는 고향의 도서관에 대한 기억을 책의 외양을 통해 되살린다.

“도서관은 큰 책이다. 너무 커서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한 곳에 놓아두고 있는 큰 책이다. 도서관 지붕은 책의 등이고 도서관 벽은 책의 겉장이고 도서관 문은 이 큰 책의 안 표지와, 목록은 이 책의 목차다.”

《화두》역시 '기품을 지닌 큰 문학'이라는 평가와 일종의 '광세'로서 작품의 의의를 인정해도 파편적인 사색으로 세상의 변화를 담을 수는 없다는 상반된 평가가 있었다.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평론가는 자신의 견해를 부연 설명하는 자리에서, 문학계에도 어김없이 존재하는 '성역'과 척박한 평론 풍토에 대해 안타까움을 피력하기도 했다.

〈최성일〉

러기 위해서 감독님 몰래 비장의 무기 같은 걸 숨겨 아껴둘 수도 있는 일이고요.”

여기서 '감독님'은 임권택 감독을 말한다. 두 사람은 '서편제'를 통해 굳은 믿음을 쌓았고, 그런 신뢰관계가 《추적》로 이어졌다. 《서편제》는 1백만명이 영화를 보았고, 그 중 15%가 영화의 감동을 소설로 확인했다. 《추적》은 30만명이 책을 읽었지만, 흥행은 예상외로 부진했다. 소설을 영화로 만들면 작가는 판권료를 받아 부수입을 챙겨서 좋지만, 영화화가 책의 판매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베스트셀러를 영화로 만들었다고 곧바로 흥행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영화 《그들도 우리처럼》의 원작인 《새떼》는 뒤늦게라도 영화의 덕을 못봤고, 《영원한 제국》의 베스트셀러 행진은 극장으로 이어지지